

[ 종합·해설 ]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공동선대위원장이 1일 나주 남평시장을 찾아 상인과 악수하며 정동영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 /나주=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후보 등록 이후 처음 광주·전남을 찾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2일 광주 충장로 우체국앞에서 유세를 갖고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며 젊은층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주말인 1일 호남 표심 공략에 나선 민주당 이인제 후보가 화순읍에서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화순=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김병호·곽성문 의원 가세  
親차인사 5일 합류 할 수도

■ 림 세불리기 어떻게 되나

무소속 이회창 후보 진영에 한나라당 김병호·곽성문 의원이 연세탈당 후 가담하면서 세불리기에 가속이 붙을지 주목된다. 뒤늦게 대권가도에 뛰어 들어 조직과 세력에서 열악한 이 후보 측은 외부인사 면담을 위해 유세일정까지 조정하는 등 외연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 김 의원과 곽 의원도 모두 친박의원이다. 공식선거전 개시 후 첫 탈당을 기록한 곽 의원은 "정치상황에 따라 탈당을 고민하는 분이 있다"고 말해 추가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가 탈당 시기로는 검찰의 BBK 추가조사 사건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5일께로 점쳐진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좋지 않은 조사결과가 나올 경우 '도미노 탈당'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 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 범여권 인사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이 가운데 '미스터 손소리'로 통하는 조순형 의원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영입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된다.

또 참주연합 정근도 후보와 손을 잡을 가능성도 크다. 반면, 심혈을 기울여온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은 이명박 후보측이 심후보와 깊숙한 후보단일화 논의를 진행중이어서 현 단계에서는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탈당 후 남대문로 단암빌딩에서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가진 김 의원은 "탈당 전 이 후보가 전화를 걸어 도와 달라고 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 후보 역시 외연확대를 위해 직접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2일 현재 최근 각종 언론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20% 안팎에서 맴도는 데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까지 지난 달 30일부터 이명박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는 절박감이 배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영입 '0 순위'는 지난 여름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도왔던 이른바 '친박(親朴)' 의원들이

/연합뉴스

시장·터미널 돌며 “호남의 위대한 선택을”

■ 각 후보 캠프 광주·전남 유세전

대선 후보등록 후 처음으로 후보들이 일제히 광주·전남을 찾아 호남 표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각 후보의 대선캠프도 공식 선거 운동 개시 후 첫 주말·휴일을 맞아 불꽃튀는 지원유세 대결을 펼쳤다.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공동선대위원장은 2일 오전 증심사 입구에서 임현도 광주시장위원장, 강기정 의원 등과 함께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와 '광주의 선택'을 호소하며 정동영 후보 지원 유세를 벌였다.

신당 “광주가 정권창출 원천포어”

또한 김 위원장과 손학규 공동선대위원장은 신중식 전남선대위원장, 김희석 원내대표 등과 함께 1~2일 재·보선이 치러지는 해남과 장흥, 장성지역 순회 지원유세를 통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통령 불가본'을 역설하며 정 후보 지지율 높이기에 주력했다.

광주시선대위는 또 2일 상무지구 랜드피어에서 천정배 가족행복위원장과 양형일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은행 광

주지점'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동채 사무총장은 1일 광주 급호지구 유세를 통해 "위장, 위조, 탈세를 밥먹듯 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느냐"며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뒤 "정동영 후보를 선택해 광주가 다시 한 번 정권창출의 원천이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한나라 “호남인 중심 좌파정권 종식”

'공교롭게도 호남을 축국하는 7천인 학부모 모임'은 3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정동영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회견을 갖고 ▲무상교육 고교까지 확대 ▲우수 공립고 육성 및 대학경쟁력 강화 ▲영어교육 국가책임제 등을 요구한다.

한나라당 광주시선대위 유세본부(본부장 김전국)도 휴일인 2일 중심사 입구와 말바우시장, 유평3거리, 광주역 앞 등지에서 이명박 후보 지원유세를 펼쳤다. 김덕룡 의원과 유준상 고문, 전석홍 전남선대위원장은 1일 영광과 나주를 방문, 거리유세를 벌였다.

지난달 19일 한나라당에 입당한 문일섭 전 국방부 차관과 김정렬 전 육군중령행정학교장 등 12명의 예비역 장성들도 2일 여수와 순천, 광주지역을 순회하며 "이번 대선에서 호남인들이 중심이 되어 좌파정권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이명박 후보 지지를 호

소했다. 광주시선대위는 "3일 김재구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과 서자현 호남대 초빙교수, 김민웅 전 광주대 교수협의회 의장 등 광주·전남 지식인 747명이 이명박 후보 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선대위와 전남도선대위도 광주·전남 각 지역 시장과 터미널 등을 돌며 지원 유세를 계속했다. 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연설원으로 공식 등록된 이인제 후보의 부인 김은숙씨는 지난 달 30일 여수 엑스포유지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이어 1일에는 광양, 순천, 광주 등지 시장을 돌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후보 부인 광양·순천서 지지 호소

박상천 대표 등 당 지도부는 2일 오후 이 후보, 최경주 광주시당위원장, 박주선 광주선대위원장 등과 함께 광주시 광전동 종합버스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등을 돌며 지원유세를 펼친데 이어 3일에는 남광주 시장 및 송정 5일 시장, 충장로 상가를 순회하며 민주당과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선대위원장과 강기수 광주시선대위원장, 오민영 시선대위 공동위원장 등은 1일 광주 급호지구상가와 삼복서점 앞 등에서 유세를 통해 권영길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신당 오늘 'BBK 특검법안' 발의

'BBK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은 특검제를 도입하라며 검찰을 압박하는 한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BBK를 실질적으로 소유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은행의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신당 윤호중 의원은 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정외구현 의지가 어떠한 정치적 압박과 고려에 의해 좌절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총정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주가 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3일 오전 중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이명박 특검법안 발의에 찬성하는 의원은 34명이지만 3일 발의 때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면서 ▲BBK 주가조작 등

증거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 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다스의 지분 96%, 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신고 누락 등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당의 이같은 방침은 오는 5일로 예정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검찰을 압박하는 동시에 수사결과와 관계 없이 'BBK 카드'를 대선 막판까지 활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또 만약 이번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특검을 통해 의혹을 파헤쳐 내년 4월 총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겠다는 속내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신당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창조한국당 등과 공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명박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한나라 “이번 일주일을 사수하라”

"3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일주일이 17대 대통령 선거를 결정 짓는다." 3주 가량을 남겨두고 있는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4일을 전후해서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변수인 'BBK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보여 또는 보수권의 후보단일화 논의도 이 기간 동안 가장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가장, 그것도 월등히 앞서고 있는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이번 일주일을 무사히 넘기기 위해 방심을 경계하면서 총력방어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2일 "역대 대선에서 후보등록 이후에는 지지율 순위가 뒤바뀐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오늘부터 일주일만 무사히 넘기면 사실상 승

부는 결정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여론지지율에서 이 후보는 40% 내외의 지지율로 2위와의 격차를 10~20%포인트 유지하며 있다. 또 각종 언론에서 BBK 의혹사건을 놓고 이 후보에 불리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지지율은 변함없는 상황이다. '이상한 대선'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공개적으로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현재의 대선 상황이 '이상한(?) 만큼 세세론이 혼란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역시 가장 큰 난관은 이번주초로 예상되고 있는 BBK 수사결과 발표다. 발표 내용에 따라 대선지형이 이대로 굳어지느냐 또다시 요동치느냐가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선거법 퀴즈 풀고 상품도 타고

광주일보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현상퀴즈를 실시한다. 선거법 현상퀴즈는 매주 월요일 한번씩 출제되며 두 문제를 모두 맞춘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 1명에게 고급 진공청소기를 우송해 드립다.

- 문 1) 다음중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 후보자 ② 마을이장 ③ 후보자의 배우자 ④ 선거권자
- 문 2) 정치자금기부 기탁금제도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받는 자간의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기탁금을 기부한 자는 ( )까지는 세액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10만원 ② 20만원 ③ 30만원 ④ 40만원

- \*응모요령=엽서에 문1) 과 문2)의 정답을 적어 (우편번호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급남로 2가 20 광주일보사 편집국 선거법퀴즈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매주 금요일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지나주 정답풀이  
문 1)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일까요? (정답 ④)  
① 11월 25일~12월 19일 ② 11월 25일~12월 18일  
③ 11월 27일~12월 19일 ④ 11월 27일~12월 18일
- 문 2) 선심성 공약남발을 막으면서 후보자들이 내놓은 선거공약을 꼼꼼히 따져보아 투표 때 선택기준으로 삼고, 당선자가 임기 중 그 공약을 잘 이행하는지 지켜보자는 운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 ②)  
① 공명선거운동 ②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  
③ 공약선택운동 ④ 깨끗한 선거운동

\*지나주 퀴즈 당첨자: 박희원 순천시 저전동 114의 7

光州日報社 전남남도선거관리위원회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합격률 1위 개강 12월 3일 "무료청강" 광주고시학원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개강 12월 3일 광주고시학원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